

# 美 유학길에 부처를 만나다

인터뷰 13년 해외유학 이야기 엮은 소운 스님

“공부에만 매진해 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책을 썼어요. 타인의 시선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글로 옮기다보니 내 안에 쌓여있던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번 책에는 13년간 배움의 길을 걸어 온 스님의 '경험담'과 '수행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입학 성공기'나 '공부 잘 하는 법'을 다룬 여타 실용서와는 그 틀을 달리한다. 스스로를 '학승(學僧)'이라 부르는 스님이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유학 생활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열불수행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지듯 펼쳐진다.

소운 스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고등학교이던 1979년 수석으로 출가했다.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84년 동국대 신학과에 입학한 것이 배움

## “평상심 벗어나서 부처 찾을 수 없어 언어장벽·수면부족 염불로 이겨내”

의 시작이었다. 동국대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5년 간의 일본 유학 끝에 영어를 통해 불교 원전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 다시 하버드대 영어인도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하버드'라는 매혹적인 이름은 언어의 벽과 수면부족, 영양 부족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부딪쳐왔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쪼개서 공부했다. 공부 외에 했던 것은 단 하나, 염불뿐이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영혼을 집중하는 염불이 유학생활을 지탱해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유학생활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도리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을 하는데 왜 힘드냐"는 것이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혹은 출세를 하기 위해 공부를 했으면 힘을 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해서 선택한 것이 공부였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 때가 참 안쓰럽고 구차한 시기지만요.(웃음)"

그렇다면 스님이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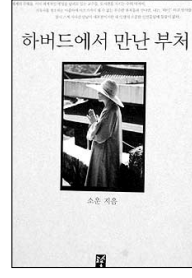
"처음에는 형이상학적이고 경배의 대상인,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서 평상심을 벗어나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언제나 즐거운 얼굴로 커피를 따라주는

커피하우스의 흑인 아저씨, 매일 마주치는 기숙사 청소부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게 됐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부처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준 유학을 마치고 2년 전 한국으로 돌아 온 스님은 약사암에 기거하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다.

"유학을 마쳤다고 수행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배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배움이 '나'를 떨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지요. 안거에 드는 것도 바로 그런 고민의 연장입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소화'하는 작업이 라고나 할까요?"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지음 도솔 | 9천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발견은 가난함과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소운 스님(사진)은 경북 문경의 한 산사에서 화두 참구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일본 도쿄(東京)대 석사학위, 한국의 비구니 스님으로는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자전적 에세이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한 권을 속세에 남겨둔 채.

11월 20일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안거 준비에 한창인 소운 스님을 만났다. 최근 발간된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때문에 몇몇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평소 약사암을 나서는 일이 별로 없기에 석 달간의 부재가 조



## 비우고 비워야 만날 수 있는 '경주'

장소'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의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지은이에게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나고, 얼굴만 돌려도 설화의 장소와 맞닿아 있는 곳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경주다. 그곳 경주에서 지은 이는 '비움'이란 화두를 잡고 느끼지만 풍요로운 사색의 길에 나섰다. 황룡사지 앞에서는 "내 영혼이 얼마나 존엄하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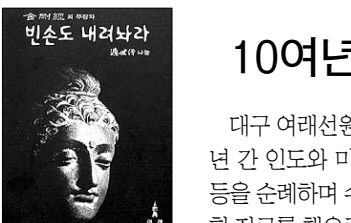
되고, 넓은 남산동 한옥촌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대도시 아파트의 직선 문화에 비해 경주의 기와집 골목은 인간적이고 정겹다. 집집마다 뜰엔 팻줄이며 골동 냄새가 나는 물품 같은 것이 놓여 있고, 석류나무 화과나무 과수들이 운치있게 자라 있다."

하지만 포클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황오동 골목을 보면서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원형을 잃어가는 경주

의 모습에 마치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 "경주는 짓고 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승처럼 비우고 비워야 할 도시가 아닐까. 15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원형을 발견하고 달팽이집 같은 일상에서 비껴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맞도록, 그것이 민족의 고향으로서 경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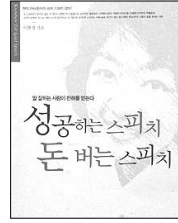
수십년째 경주에 살아 온 화가 김호연(동국대미술학부 서양학과) 교수의 풍경 그림도 책에 보태져 사색의 향기를 더한다. 여수령 기자



## 10여년 수집한 '금강경' 자료 엮어

대구 여래선원장 법산 스님이 10여년 간 인도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을 순례하며 수집한 <금강경>에 대한 자료를 책으로 엮었다. '순세(順世, 세간을 등진 승려)'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출간한 스님은 책에서 직접 찍은 1천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자료를 아낌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다'는 평면적인 얇은 무지에 빠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간추려 놓았다"고 말한다. 스님은 현재 전국 선원과 주요 사찰에 이 책을 법보시하고 있다. (02)515-8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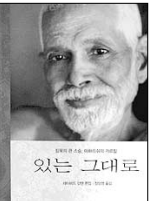
## 그림 그리듯 말하세요

불교방송 이현정 아나운서는 <성공하는 스피치, 돈 버는 스피치>에서 "말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써 온 지은이가 말하는 '굿 스피치'의 핵심은 그림을 그리듯 말하는

것. 즉 상대방이 화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그 전제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인 감각까지 표현할 수 있는 묘사력. 그래서 지은이는 소설을 열심히 읽으라고 권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말도 필수다.

### 새로운 책

■ <있는 그대로> (데이비드 갓맨 엮음, 정창영 옮김, 한문화, 1만 2천8백원) = 침묵의 진리를 설파한 라마나 마하리쉬(1879-1950)의 '자아탐구법'을 엮은 세 번째 개정판이다. 마하리쉬는 우파니샤드(인도 경전의 가르침을 실정한 현대의 큰 스승이다. 평범한 의문을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제자들의 물음과 깨달음을 이룬 스승의 현답이 이 책의 백미. 이거통(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이 책을 "마하리쉬의 가슴까지 담아낸 영적구도의 좋은 길잡이"라고 평한다.



■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자> (미영순 지음, 북포스, 9천원) = 전국 저서력 연합회 대표이자 '2004 이웃돕기유공자포상' 국민포장을 수상한바 있는 미영순 씨가 실명이라는 장애를 딛고 일어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러시 아열대의 거부였던 외가의 흥망, 부모님의 낭만적인 사랑, 업보 같은 장애를 이기고 오늘에 이르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 <비구니> (김정은 지음, 화남, 9천원) = 비구니 출신 소설가 김정은 씨가 10여 년 간의 출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 사상이 태어난 주인공 진희(자은 스님)는 출가 후 우연히 만난 준민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 구도자의 길과 한 여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소운 스님 지음 도솔 | 9천원

###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야문
2	용서	달타리 라마	오래된미래
3	오체부처	한경혜	반디미디어
4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오계이야기	일타 스님	효림
6	참나	해거 스님	선문출판사
7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8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9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10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연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문업체!  
 건강 대안사업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원 신사님이 역작한 <마로보인 선문염송>  
 전3권 중 제1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책도 빠짐없이 평하고 총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쉽고 재미있는 마음공부”

# 멍텅구리 부처님

불영자광 지음, 338쪽, 값 9,500원

스승이 군대 가라 한다고 이미 제대하고도 또 입대한 멍텅구리 자광스님! 그 멍텅구리 스님은 말한다. "나만 멍텅구리인가? 아름다운 비빈들과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쥔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은 부처님도 멍텅구리다. 또 엄청난 재물을 보시고 답과 절을 지어주셨다는 양무제를 물리치고 도적 떼가 들끓는 송산 골짜기로 들어가 9년 간 변변한 탈마조사도 멍텅구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묻는다. "내가 멍텅구리인가, 그대들이 멍텅구리인가?"

### 전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금강경을 금강경으로 보지 말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금강경을 보라!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낸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원로의 정희원인 이사우 박사가 세존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을 설하신 이후, 처음으로 풀어낸 금강경 안에 비장(秘藏)된 영기의 비밀을 밝힌다. 이 비밀은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관찰하는 현대인이 등장할 때까지 깊숙이 감추어져 왔던지도 모를 일이다. 금강경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人天之道)를 설한 불교를 대표하는 경이다.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인간의 도만 설명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하늘의 도(天文學)와 인간의 도를 최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만년 설과 방화가 녹아 내리고 개필라성 폭우가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기상이 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인류의 큰 재앙으로 인간과 자연이 한 뿌리라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한시 바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마 인류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사우 편저, 348쪽, 값 13,000원

### 티베트 금강경

가 말라 설라 의 金剛經 廣釋

저 거대한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고도 마음놓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나 물리적인 힘보다 앞선 것은 정신적이고 정신력의 근원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붓다 세존의 정안(正觀)이며 불법의 핵심이다. 북전(北傳) 대장경 가운데서 금강경만큼 널리 읽히는 경도 없다.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인도 나란다 대학의 뛰어난 학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까말라설라 존자의 논리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본다. (그동안 티베트대장경 속에 은밀히 간직해 있던 이 책을 티베트불교학자 양승규 박사가 오랜 노력 끝에 처음으로 완역하였고, 책이론은 티베트대장경 안에 있는 금강경이라는 뜻을 줄여 티베트금강경 이라고 했습니다.)

· 양승규 역 225쪽 값 9,000원